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 어머니 대상 부모역할프로그램 효과성과 지역사회 활용방안*

김연수**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을 위해 개발된 부모역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및 수도권의 전국 10개 복지기관에서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인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 어머니 123명과 통제집단 92명을 대상으로 한 유사실험설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경험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과 종료 후 비교 시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에서 부모역할 자신감과 만족감 등 부모역할자긍심과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관계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며,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유의미한 감소가 검증되었다. 수입, 학력, 사전점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결과에서는 부모역할 자신감과 만족감을 포함한 부모역할자긍심과 부모자녀의사소통에서 프로그램참여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산출되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에 관한 포커스집단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에서는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 증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긍정적 전환,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친밀감 증진, 긍정적 정서 증진, 그리고 자신의 변화로 인한 자녀와 가족의 긍정적 변화 등이 주요 변화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역할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모역할 프로그램, 부모역할 프로그램 효과성,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 어머니, 강점관점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월드비전 ‘맘이 든든’ 부모역할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보고서, 2017」에 수록된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학술논문의 형태로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며, 2018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yskim@bu.ac.kr)

I. 서론

부모역할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애 과제로서 전통적 젠더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가족에서도 여전히 간과될 수 없는 가족 내 여성의 중요한 역할기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역할은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많은 도전을 야기하며, 자녀와의 관계에 지속적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 여성들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역할은 자녀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맺는 관계의 질, 부모의 적절한 지도, 그리고 긍정적 부모역할 기능의 실천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shion & McMahon, 1998; Chu et al., 2015).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해져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적이 될 수 있으며(Feinstein, 2008), 자아정체감 혼란, 진로문제, 또래관계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므로 극단적인 경우 우울이나 비행, 자살 등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이다(Burns & Hickie, 2002; 이은주·이은숙, 2002; 김사라형선, 2011). 더욱이 최근에는 청소년 문제로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이재림 외, 2013),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녀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부모역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비용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어(Furlong et al., 2012; Barlow & Coren, 2018)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 어머니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통해 볼 때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세대와 다른 청소년의 문화 및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잘 대처해나가지 못할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Cmic & Greenberg, 1990; 김사라형선, 2011).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거나 소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이전과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부모역할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역할 수행은 청소년기 자녀와 중년기 여성의 이러한 생애주기적 특성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인 빈곤과 같은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빈곤한 부모의 경우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Flouri, Mavroveli, & Tzavidis, 2012; Barlow & Coren, 2018), 이는 빈곤이 부모의 기능수준을 저해하며,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콘거와 동료들(Conger et al., 2002)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제시하며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이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다시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가 성장하는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빈곤과 부모역할 수행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양미진 외, 2010).

이와 같은 청소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저소득 가정이 직면한 부모역할의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조명되어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박현숙·구현영, 2010; 배주미 외, 2013; 소수연 외, 2013), 저소득 가정 대상(김희진, 2002; 이재현, 2008; 양미진 외, 2010),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김연수, 2015)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목표를 둔 프로그램 개발연구들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개발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데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 단위에서 다수의 대상자들을 확보하여 개발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 실시될 수 있는 보다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제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지원을 위해 개발된 부모역할 프로그램(월드비전, 2014; 김연수, 2015)¹⁾을 전국적 단위에서

1)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부모역할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월드비전 국내사업팀과 사회복지전공자로 부모역할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의 경험에 있는 본 연구자에 의해 월드비전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2014년 개발되었으며, 개발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일차적 효과검증 결과는 학술논문(김연수, 2015)으로 보고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확대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점관점과 가족레질리언스 접근, 그리고 실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청소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수행 및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커스집단 인터뷰 자료에 실제적 근거를 두고 개발된 것으로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증진, 그리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총 6회기로 구성된 집단기반의 부모역할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당시 제기된 연구의 제한점인 1개 지역, 1개 기관, 10명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적용되어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연구는 첫째,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의 실천모형과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에서 본 프로그램을 응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셋째, 나아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입안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물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념과 효과성

부모역할 프로그램이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역할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Gardener & Leijten, 2017)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을 터득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재림 외, 2013). 이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근거 이론이나 진행방식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이를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역

바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맘이 든든’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명명되어 월드비전 국내 사업팀 산하 사회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할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 또는 부모코칭(parent coaching) 등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모두 부모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부모역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는다. 또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신감 등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어 (Barlow & Coren, 2018)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실시된 대표적 부모역할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서구에서 개발된 부모효율성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 체계적 부모교육(System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STEP),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 등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고 유아기나 아동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양옥경·김연수, 2004). 그러나 이후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진됨에 따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며(김길숙, 2017), 여러 개인연구자들에 의해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부모역할프로그램 개발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이명숙, 2011; 임은미·김중은, 2014; 한경님, 2014 등).

이러한 부모역할 프로그램들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2006년~2011년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41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 프로그램은 첫째, 양육태도, 양육행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과 같은 부모의 행동적 변화, 둘째,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부모의 내적 변화, 셋째, 자녀의 문제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학습기술 등과 같은 자녀의 변화에 유의미한 효과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이재림 외, 2013). 또한 이 연구에서 부모역할 프로그램은 특히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인원수가 15명 이하의 소집단으로 진행된 경우,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실시 형태에 있어 소집단 형태가 집단구성원에 있어서는 어머니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대상 연구들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는 위기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박현진 외, 2011),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배주미 외, 2013),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프로그램(소수연 외, 2013)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정부 부처 프로그램들은 주로 가출이나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등을 주제로 학교나 센터에서 강의중심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길숙, 2017). 일반 청소년 가족 대상 연구로는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12명을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 총 8회기로 진행된 자녀양육 코칭 프로그램(김사라형선, 2011), 청소년기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로 진행된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박현숙·구현영, 2010),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9명을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 총 6회기로 진행된 부모역할 프로그램(김연수, 2015)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역할만족감,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가 어머니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젠더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관점을 지향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이 중시되고 있는 오늘날의 가족에서도 자녀양육과 성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전히 어머니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구의 경우 부모역할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를 목표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Chu et al., 2015). 서구의 부모역할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트리플 피(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²⁾로 효과성에 대한 대규모 근거를 지니고 있다(Sanders et al., 2014). 이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 주 1회 2시간씩, 8주간 동안 진행되는 집단 트리플 피(Triple P)의 효과성에 관해 44개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한 연구결과 부모역할 실천과 만족, 효율성, 그리고 부모적응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2)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는 호주 Queensland University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개인, 집단의 형식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을 증진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Sanders, 2012).

(Sanders et al., 2014). 또한 이 연구에서 대다수의 연구가 어머니에 대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에서도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차적 집단이 어머니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트리플 피(Triple P)를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에 적용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추와 동료들(Chu et al., 2015)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72 가족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부모역할 실천, 자신감,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에 향상이 있었으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효과성이 검증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이 감소하고 부모의 지도감독이 증가한 것이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서 보고되었다. 또한 도로시·카람·샌더스(Doherty, Calam, & Sanders, 2013)는 이 프로그램을 특수욕구를 지닌 집단인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는데 당뇨와 관련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최근 트리플 피(Triple P) 연구의 새로운 시도는 시간상의 이유로 연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1일 집단 부모역할 프로그램(All-day Group Parenting Program)’의 형태로 주말을 이용해 하루 8시간 동안 집단을 진행하고 이후 4주간 전화로 추후관리 하는 것으로 변경 진행한 후 그 효과성을 연구한 것이다(Tellegen & Johnston, 2017). 303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 프로그램 참여 부모들은 자녀 문제행동 및 역기능적인 부모역할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부모역할 적응과 관련하여 우울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여 새로운 1일 접근방식도 효과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Tellegen & Johnston, 2017). 이와 같은 기존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른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Gardener & Leijten, 2017).

서구의 또 다른 부모역할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발 이후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되고, 메타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그 효과성이 검증된 것으로는 인크레더블 이어스(Incredible Years)³⁾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3) Incredible Years는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Webster-Stratton에 의해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행동문제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관계향상과 학대적인 부모역할의 감소를 통해 자녀의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며, 집단 형식으로 12-14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여러 국가와 세팅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아동문제에 효과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Gardner & Leijten, 2017).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를 일차적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메타분석 결과 자녀의 문제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이 검증되었으며(ATA, Castro, & Matthys, 2013),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을 지닌 가족과 소수인종 가족들을 대상으로 총 154가족에게 적용한 결과 자녀의 과잉행동 및 부주의적 행동이 감소하였고, 참여한 부모들의 칭찬과 보상 사용 증가와 비밀관적이고 가혹한 훈육 감소가 보고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Leijten et al., 2017).

이상과 같은 서구 부모역할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추세를 보면 개발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탄탄한 실증적 근거를 지니고 지역사회 내 여러 집단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의 부모역할 프로그램들은 개발 이후 여러 지역, 여러 장소,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2. 본 연구에서 실시된 ‘부모역할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본 프로그램은 강점관점과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저소득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 그리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자료에 실증적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⁴⁾.

4) 본 프로그램은 개발 당시 청소년 가족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이 직면한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변화되기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9명과 청소년기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각각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39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저소득 청소년기 가족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9명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담고 있어야 할 목적 및 내용, 그리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절한 회기 수 구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를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및 근거이론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김연수, 2015)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강점관점이란 인간이 지닌 병리나 문제보다는 능력, 잠재력, 가능성, 비전, 꿈 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현행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패러다임이며, 긍정심리학 등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강점발견의 핵심은 희망과 가능성으로서 더 나은 미래와 삶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점관점의 주요 요소는 유능성, 능력, 용기, 가능성, 긍정적 기대, 잠재력, 그리고 자원 등으로 구성된다(Saleebey, 2009).

글리켄(Glicken, 2004)은 강점관점의 주요 요소에 관해 첫째,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이거나 부정적 측면 보다는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긍정적 기능으로서 대처기제, 문제해결 기술, 자기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 둘째, 클라이언트는 선천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셋째,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많은 긍정적 행동들을 탐색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서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고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숨겨진 동기로서 클라이언트의 열망, 꿈, 희망, 바램들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족레질리언스접근이란 이러한 강점관점에 기반을 두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에 유용한 개념적 틀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가족 기능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Walsh, 1998; Walsh, 2002). 이 이론에서 신념체계란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로서 역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들에 관해 긍정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조직유형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정서적 유대감과 연결성, 그리고 상호 공유하는 가족 내 규칙과 역할분담 등을 의미하며, 의사소통과정이란 가족구성원들이 명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기쁨과 고통 등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사랑과 감사 등의 긍정적 감정 등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정서적 능력과 직면한 문제들에 관해 함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문제해결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Walsh, 1998).

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강점관점을 그 기본 시각으로 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과 자녀의 강점, 희망, 비전,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이를 더욱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바탕 위에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에서 설명된 구체적 개념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개념들이 프로그램의 매 회기를 통해 자녀 강점 찾기, 자녀에 대한 긍정적 시각전환,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방법 탐색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2) 프로그램 목적 및 구성과 내용

본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와 가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로서의 가족관계가 향상되어 보다 행복한 가족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첫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점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 둘째,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자신의 방식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알려주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셋째, 자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논의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 넷째,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자녀를 이해하는데 적용하며, 자신의 훈육방식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훈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섯째, 자녀의 비전과 꿈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섯째, 부모로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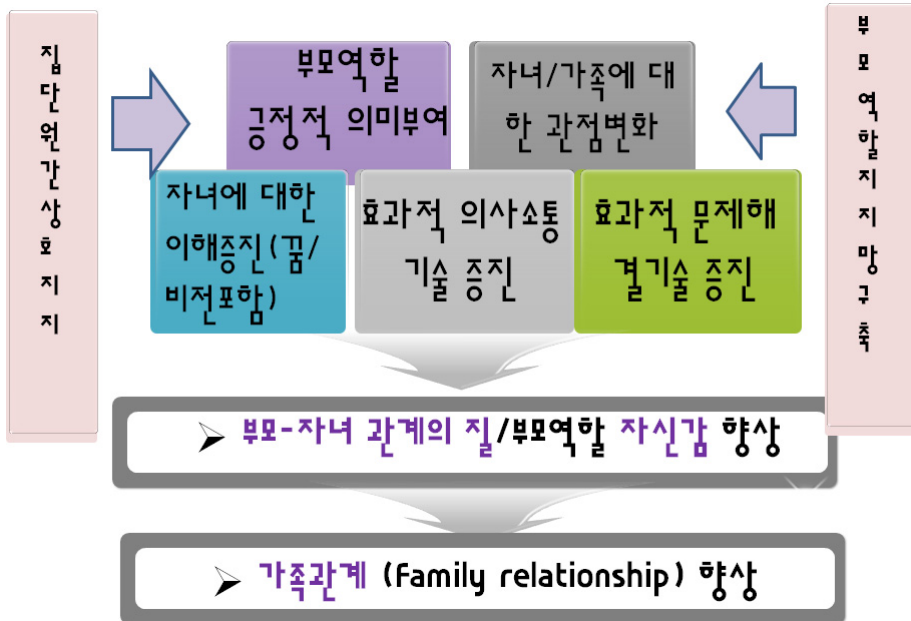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매 회기 2시간, 총 6회로 구성되며, 비슷한 연령대인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8~10여명 정도로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방식은 매 회기마다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관해 토론하고 상의하며, 상호지지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고 참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총 6회기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 및 주요 내용

회기	주제	세부 내용	근거 이론
1회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부모로서 변화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목적설정' '긍정적 시각으로 자녀와 가족 바라보기' '나의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적 및 전체 일정 소개하기 * 부모로서 현재 나의 모습점검하기/ 부모로서 변화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대한 목적설정하기 * 자녀와 나, 우리 가족의 강점 찾기 * 나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하기 	강점관점 가족레질리언스 : 신념체계
2회	'자녀와 친밀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야할 의사소통 방법 알기 &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지적/일방적 훈계/일방적 조언 등 *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경청하기 - 공감하기 - 나-메시지 사용하기 - 자녀 의견 존중하기 	강점관점 가족레질리언스 : 의사소통과정
3회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소재 찾기 *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찾기 *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활동 계획하기 	강점관점 가족레질리언스 : 조직유형
4회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 이해하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대처기술 증진하기' '가족이 함께하는 문제해결기술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 이해하기 * 자녀에게 적용되는 가족규칙 확인 및 변경하기 * 자녀와 빈번히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도움이 되는 대처행동과 도움이 안 되는 대처 행동 찾기) * 문제해결기술 6단계 배우고 적용하기 	강점관점 가족레질리언스 :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 (Feinstein : 청소년기 뇌이야기)
5회	'내 자녀의 특성과 재능 인식하기' '자녀의 비전/꿈에 관심 갖기 및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강점/발전/변화 찾기 및 이에 대한 칭찬과 격려기술 연습하기 * 자녀의 재능/꿈/비전 발견 및 지원 방법 계획하기 * 자녀와 함께 자녀의 꿈/비전 실현에 대한 단계별 계획세우기 	강점관점
6회	'부모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관리하기' '부모로서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 찾기' '부모역할 지치않 구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직면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긍정적 해결방안 찾기 * 부모로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 찾기 *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리스트 만들기 	강점관점 가족레질리언스 : 조직유형

자료 : 월드비전 '맘이 든든' 부모역할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2017:11-12)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상과 같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각 회기별 주요 내용들은 [그림 1]과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그림 1]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자료 : 월드비전 '맘이 든든' 부모역할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2017 : 10).

III. 연구방법

1. 연구개요

1)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의 한 방법인 유사실험설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이 실시된 각 기관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동일 기관 이용자로 실험집단 참여자들과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향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

는 잠재적 대상자들을 찾아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⁵⁾.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일련의 척도들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2) 포커스집단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여 특정 영역 점수 변화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실험설계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전라·경상권, 강원권의 3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별로 각 1회씩, 회당 2시간~2시간 30분가량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참여자는 각 기관별로 인터뷰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자를 2-3명씩 추천받는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실시 전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의 연구 목적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된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 과정이 녹음되었으며, 이 후 녹취록으로 전환되어 인터뷰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자의 노트 및 메모와 함께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 1장 3조에 제시된 청소년의 정의에 근거하여 9세 이상~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이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들도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으로 함께 연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5) 통제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 종료 이후 다음 분기에 실시되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

실시를 위한 집단구성에서는 자녀의 학년이나 세부연령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한 집단 당 8~10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집단성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전국적으로 10개 기관, 총 123명의 어머니였으며, 통제집단 참여자는 총 92명이었다. 포커스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자는 총 19명으로 수도권 5명, 충청·전라·경상권 9명, 강원권 5명⁶⁾이 연구참여자로 함께 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 프로그램은 전국을 기준으로 수도권역 2개, 충청권역 2개, 전라권역 3개, 경상권역 1개, 강원권역 2개의 총 10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진행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대졸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최소 3년~최대 15년 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자의 대다수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현장 경력자들이었다⁷⁾. 프로그램의 실시에는 본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공통의 매뉴얼과 워크북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 1박 2일로 구성된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시기간 중의 중간 수퍼비전, 그리고 종결 평가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6)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는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나 포커스 집단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 1명은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같은 지역의 어머니들과 함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이후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포커스집단 인터뷰 참여를 자원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7) 프로그램의 주 진행자는 각 기관에서 가족 및 집단 대상 프로그램제공과 관련한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관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다음과 같으며, 측정은 모두 5점 리커트척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증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역할자긍심 척도(이정운·류희균, 2006)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로서의 지각된 효능감과 부모역할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포괄하는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전체 척도 가운데 배우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영역을 제외한 총 36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구성은 부모됨의 전반적 만족감, 부모역할 자신감, 자녀지도에 대한 통제감, 부모자녀관계 만족감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인 α 값은 사전·사후조사 모두에서 .95로 산출되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건강성 척도(유영주, 2004) 가운데 긍정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척도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의 질문인 ‘우리 가족은’을 ‘나와 자녀는’으로 관계를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α 값은 사전조사 .90, 사후조사 .91로 산출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이며, 부모역할 수행의 자신감 및 만족감, 그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과도 관련성이 있는 부모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가운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청소년기 자녀 양육부모에게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α -값 사전 .90, 사후 .88로 검증되었다.

넷째,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족관계의 질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양옥경·김연수, 200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들 간의 정서적 친밀성과 수용 및 존중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α 값이 사전과 사후 모두 .96으로 산출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기술분석, 교차분석(χ^2 검증), 집단별 평균분석,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 분산분석,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및 프로그램 실시 후 각 집단 내 점수 변화가 유의미한지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사전점수와 함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통제된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사후점수에 대해 갖는 주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자료에 대한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녹취록으로 전환한 후 프로그램 참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진술한 주요 개념을 찾고,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로 분류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내용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의 내용이 실제 참여자들이 보인 변화내용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진술한 변화내용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관찰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변화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청소년기 자녀의 어머니들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연령대는 두 집단 모두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연령대의 차이가 없었고, 평균연령은 실험집단 46.1세, 통제집단 44.5세로 모두 40대 중반으로 산출되었다. 둘째, 결혼상태는 실험집

단의 경우 기혼이 37%, 이혼이 44%였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기혼이 51% 이혼이 33%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학력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중졸 이하가 21.2%, 고졸이 55.9%, 전문대졸 이상이 22.9%였으며, 통제집단은 중졸 이하가 7.8%, 고졸이 62.9%, 전문대졸 이상이 29.1%로 나타나 통제집단의 학력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넷째, 월평균 수입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실험집단 43.2%, 통제집단 18.8%, 100-200만원 미만이 실험집단 42.3%, 통제집단 55.3% 등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대다수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저소득 가정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실험집단이 2.2명, 통제집단이 2.4명으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여섯째, 청소년 자녀나이의 평균은 실험집단이 15.5세, 통제집단이 15.8세로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연령대 자녀를 둔 자가 실험집단 16.9%, 통제집단 12.4%, 중학생 연령대 자녀를 둔 자가 실험집단 41.5%, 통제집단 45%, 고등학교 연령대 자녀를 둔 자가 실험집단 41.4%, 통제집단 42.7%으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참여자들은 학력과 수입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어머니와 자녀의 연령대 및 자녀 수 등과 같은 특성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들이 학력과 수입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통제집단으로 선정된 어머니들 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유사실험설계 연구방법이 지닐 수 있는 한계점으로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무작위할당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원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항목	구분	빈도(%)		X^2
		실험집단(n=123)	통제집단(n=92)	
연령	30대	12(9.9)	11(12.4)	5.53
	40대	74(61.5)	65(73.1)	
	50대	34(28.3)	13(14.4)	
	평균 연령	46.14세 (표준편차 : 5.4)	44.56세 (표준편차 : 4.8)	
결혼상태	기혼	43(37.1)	46(51.1)	4.10
	이혼	51(44.0)	30(33.3)	
	사별	14(12.1)	9(10.0)	
	재혼/기타	8(6.9)	5(5.6)	
학력	중졸 이하	25(21.2)	7(7.8)	7.03*
	고졸	66(55.9)	56(62.9)	
	전문대졸 이상	27(22.9)	26(29.1)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48(43.2)	16(18.8)	15.01*
	100~200만원	47(42.3)	47(55.3)	
	200~300만원	8(7.2)	15(17.6)	
	300만원 이상	8(7.2)	7(8.2)	
자녀수	1명	21(17.8)	15(16.9)	2.45
	2명	51(43.2)	31(34.8)	
	3명	39(33.1)	34(38.2)	
	4명 이상	7(5.9)	9(10.1)	
	평균 자녀수	2.28 (표준편차 : .86)	2.44 (표준편차 : .97)	
청소년 자녀 나이	9-13세(초)	20(16.9)	11(12.4)	.86
	14-16세(중)	49(41.5)	40(45.0)	
	17세 이상(고)	49(41.4)	38(42.7)	
	평균 자녀 연령	15.50 (표준편차 : 2.37)	15.88 (표준편차 : 2.40)	
	자녀 연령 최소/최대값	최소값 : 9세 최대값 : 19세	최소값 : 9세 최대값 : 21세(1명)	

* $p < .0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점수변화 비교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먼저 프로그램 실시 전 측정한 사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역할 자긍심,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관계에서 통제집단의 점수가 실험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집단 내에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paired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역할자긍심에서 실험집단은 사전점수 평균 3.54점, 사후점수 3.77점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점수 평균이 동일하게 3.73점으로 두 시점 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사후 간 점수변화는 부모역할자긍심 척도의 전 하위영역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산출되고, 통제집단의 경우 변화가 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점수가 사전 3.50점, 사후 3.80점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 3.70점, 사후 3.68점으로 변화가 산출되지 않았다. 셋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평균점수가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2.65, 사후 2.45점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으나 통제집단의 점수는 사전 2.50점, 사후 2.45점으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넷째, 가족관계는 평균점수가 실험집단이 사전 3.46점, 사후 3.72점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사전 3.70점, 사후 3.72점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족관계의 전 하위척도들에서도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간 점수변화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자긍심 ($t=-2.02/p=.045$), 부모자녀의사소통($t=-2.07/p=.040$), 가족관계($t=-2.06/p=.026$) 척도에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사전점수상의 이러한 차이는 공분산분석을 통해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후 두 집단의 사후점수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완할 것이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집단 내 사전-사후 점수변화 비교

항목	집단구분	평균(표준편차)		t
		사전	사후	
부모역할 자긍심	실험	3.54(.59)	3.77(.52)	5.22***
	통제	3.73(.61)	3.73(.60)	.10
부모역할 만족감	실험	3.92(.68)	4.08(.61)	3.24**
	통제	4.07(.69)	4.03(.68)	-.80
부모역할 자신감	실험	2.97(.76)	3.26(.70)	4.81***
	통제	3.13(.91)	3.19(.82)	.99
자녀지도 통제감	실험	3.40(.73)	3.65(.63)	4.38***
	통제	3.64(.69)	3.66(.66)	.35
부모자녀관계 만족	실험	3.71(.71)	3.95(.63)	4.15***
	통제	3.92(.63)	3.92(.64)	.04
부모자녀 의사소통	실험	3.50(.68)	3.80(.66)	5.34***
	통제	3.70(.62)	3.68(.59)	-.45
자녀양육 스트레스	실험	2.65(.77)	2.45(.70)	-3.20**
	통제	2.50(.74)	2.45(.69)	-.98
가족관계	실험	3.46(.85)	3.72(.75)	3.50**
	통제	3.70(.74)	3.74(.70)	.70
친밀감	실험	3.42(.85)	3.68(.76)	3.68***
	통제	3.68(.59)	3.70(.62)	.35
수용준중감	실험	3.55(.96)	3.78(.81)	2.71**
	통제	3.75(.84)	3.82(.77)	1.22

p < .01, *p < .001

3) 실험집단 참여자의 자녀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점수 변화량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주를 청소년기본법의 정의 따라 넓게 보고 초, 중, 고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모두 연구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실험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점수 변화량이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표 4〉와 같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역할 자긍심, 부모자녀의사소통, 자녀양육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관계의 전 영역에서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 점수변화량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

램이 특정 연령대에만이 아니라 초, 중, 고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모두 적용 가능하며 효과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실험집단 참여자의 자녀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 점수변화량 차이 비교

항목	실험집단 자녀연령대 구분	사전점수 평균 (표준편차)	사후점수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점수변화량 평균(표준편차)	F
부모역할 자긍심	9-13세(초)	3.61(.61)	3.87(.44)	.3453(.63)	1.88
	14-16세(중)	3.58(.53)	3.70(.49)	.1302(.47)	
	17세 이상(고)	3.51(.64)	3.80(.56)	.2854(.41)	
부모자녀의사소통	9-13세(초)	3.56(.61)	3.72(.75)	.2745(.77)	.578
	14-16세(중)	3.52(.66)	3.77(.57)	.2523(.62)	
	17세 이상(고)	3.47(.73)	3.85(.70)	.3821(.53)	
자녀양육 스트레스	9-13세(초)	2.72(.84)	2.52(.65)	-.2706(.92)	.223
	14-16세(중)	2.66(.73)	2.50(.77)	-.1538(.66)	
	17세 이상(고)	2.64(.80)	2.40(.67)	-.2185(.58)	
가족관계	9-13세(초)	3.47(.79)	3.74(.70)	.3804(.94)	.977
	14-16세(중)	3.55(.82)	3.68(.74)	.1258(.68)	
	17세 이상(고)	3.49(.85)	3.79(.77)	.2833(.67)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측정한 척도들의 사전점수와 인구사회적 배경에서 차이를 보인 학력과 수입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통제된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주효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를 공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공분산분석은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사후검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하여 보다 정확하게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갖는 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 부모역할자긍심에 대한 공분산분석

부모역할자긍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인 부모역할 만족감과 부모역할 자신감 영역에서도 프로그램 참여가 갖는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 프로그램 참여가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 등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부모역할자긍심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부모역할 자긍심	공변량1(사전점수)	28.78	1	28.78	193.78***
	공변량2(수입)	.005	1	.005	.03
	공변량3(학력)	.34	1	.34	2.32
	주효과(참여여부)	1.51	1	1.51	10.21**
	오차	27.03	182	.14	
부모역할 만족감	공변량1(사전점수)	37.58	1	37.58	180.32***
	공변량2(수입)	.001	1	.001	.006
	공변량3(학력)	.11	1	.11	.54
	주효과(참여여부)	1.29	1	1.29	6.19*
	오차	37.93	182	.20	
부모역할 자신감	공변량1(사전점수)	54.43	1	54.43	200.81***
	공변량2(수입)	.08	1	.08	.31
	공변량3(학력)	.96	1	.96	3.57
	주효과(참여여부)	2.09	1	2.09	7.73**
	오차	49.33	182	.27	
자녀지도 통제감	공변량1(사전점수)	27.09	1	27.09	101.31***
	공변량2(수입)	.01	1	.01	.05
	공변량3(학력)	.32	1	.32	1.22
	주효과(참여여부)	.82	1	.82	3.09
	오차	48.66	182	.26	
부모자녀 관계만족	공변량1(사전점수)	29.49	1	29.49	126.90***
	공변량2(수입)	.06	1	.06	.27
	공변량3(학력)	.17	1	.17	.74
	주효과(참여여부)	1.45	1	1.45	6.27
	오차	42.29	182	.23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공분산분석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양육스트레스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변량1(사전점수)	29.44	1	29.44	127.91***
	공변량2(수입)	.24	1	.24	1.07
	공변량3(학력)	.25	1	.25	1.11
	주효과(참여여부)	2.87	1	2.87	12.48**
	오차	41.90	182	.23	
자녀양육 스트레스	공변량1(사전점수)	38.35	1	38.35	143.99***
	공변량2(수입)	.96	1	.96	3.63
	공변량3(학력)	1.32	1	1.32	4.97*
	주효과(참여여부)	.53	1	.53	1.99
	오차	48.21	181	.26	

*p < .05, ** p < .01, *** p < .001

(3) 가족관계에 대한 공분산분석

가족관계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가족관계 전체 척도와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가족관계	공변량1(사전점수)	40.41	1	40.41	130.62***
	공변량2(수입)	.09	1	.09	.32
	공변량3(학력)	1.48	1	1.48	4.79*
	주효과(참여여부)	.52	1	.52	1.68
	오차	55.38	179	.30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친밀감	공변량1(사전점수)	41.88	1	41.88	131.32***
	공변량2(수입)	.003	1	.003	.009
	공변량3(학력)	1.86	1	1.86	5.85*
	주효과(참여여부)	.71	1	.71	2.23
	오차	57.08	179	.31	
수용존중감	공변량1(사전점수)	40.76	1	40.76	101.15***
	공변량2(수입)	.82	1	.82	2.04
	공변량3(학력)	.95	1	.95	2.37
	주효과(참여여부)	.20	1	.20	.51
	오차	72.12	179	.40	

* $p < .05$, *** $p < .001$

2. 포커스집단 인터뷰 분석 결과

포커스집단 인터뷰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부모로서 자기 자신과 자녀, 그리고 가족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포커스집단에 사용된 연구 질문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か?’, ‘구체적으로 나 자신/자녀/가족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장 도움을 받으신 점은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1) 포커스집단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포커스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총 19명으로 모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수료한 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연령은 30대 후반~50대로 평균연령이 46.1세였으며, 결혼상태는 이혼이 8명, 사별이 5명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배우자가 있는 가정보다 많았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2.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5명,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을 하고 있었다.

2) 포커스집단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1) 프로그램 참여 이후 경험한 변화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경험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 한 결과 8개의 범주, 2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83개의 개념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구체적 변화의 내용들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⁹⁾.

연구참여자들은 첫째, 부모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구체적 변화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강점이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칭찬이 없고, 일방적으로 자녀와 소통하거나 자신이 힘든 것을 자녀에게 풀어내는 등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자녀의 강점을 찾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시각의 변화가 생겼고, 부모역할이 짐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과정이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등 부모역할에 관한 신념체계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긍정적 전환을 중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양적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점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의할 때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방식이 변화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긍정적 소통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자녀에 대한 칭찬을 시작하고, 자녀에게 격려와 지지, 공감을 보내는 대화를 하고, 나-메시지를 사용해 보는 등과 같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이들은 그 동안 자녀에게 사용해왔던 소통방식이었던 명령이나 강압적 대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거나 욕, 잔소리, 핀잔 등을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들은 자녀와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전보다 관계가 좋아지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훈육하는 방식이 이전 보다 너그러워지고 자녀에게 적용하는 규칙에도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가

9)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집단 인터뷰에 대한 전체 내용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진술문들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규칙으로 자녀를 규제하는데 보다 융통성을 갖게 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아이의 속도보다 자신이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자녀양육에 이전보다 느그러움을 갖게 되었고, 체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이 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이전과 비교할 때 자녀와의 친밀감이 증진된 것을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이들은 이전보다 자녀와 대화가 더 많아지고 서로가 보낸 일상에 관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등 대화를 통해 자녀와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친구같이 이해하는 편안한 관계로 다가가게 되었으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문자메시지나 스킨십 등을 통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눔으로써 자녀의 비전에 대한 소통과 지지가 가능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자녀가 관심을 갖는 진로와 꿈에 대해 예전 같이 돈이나 물질적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지지를 보내주고, 자녀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자녀가 자신의 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내는 등과 같이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비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 안정감 등이 증진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등 내적으로 긍정적 정서가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표정이 웃음 띠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해주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모여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서로의 힘들음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이전 집에만 있었던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은둔형 삶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정서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일곱째,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 내용들을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결과 자신의 변화가 자녀의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 증진 등과 같은 자녀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칭찬과 지지, 격려 등을 계속 한 결과 자녀의 자

신감이 증진되고, 자녀가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전보다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서적 변화는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진학이나 진로에 있어 꿈을 갖게 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으며, 집 안에서도 자녀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퇴근 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밖에서는 나쁜 행동 등에 연루되지 않는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변화는 자녀의 변화에 더하여 가족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분위기가 서로 짜증내는 얼굴에서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하는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함께 모여 하는 활동이 생기게 되는 등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¹⁰⁾.

〈표 8〉 프로그램 참여 이후 경험한 변화들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식의 변화	자기통찰력이 생김	-자녀의 강점이 보이지 않는 나 -칭찬이 없는 나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나 -힘든 것을 아이에게 풀어내고 상처 주는 나 -부모로서 나의 내적 상태를 돌아보게 됨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강점을 찾기 시작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기대치를 조정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체계 변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함 -부모역할은 짐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 -아이가 무조건 부모를 따라야한다는 생각이 변함
소통방식의 변화	긍정적 소통방식의 적극적 활용	-칭찬하기 시작 -격려와 지지를 보냄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적 대화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대화 -나-메시지 사용

10) 〈표 8〉에 제시된 이상과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 경험들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회복지사 9명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관찰한 참여자들의 변화 내용과 부합하는지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주	하위범주	개념
	비효과적인 소통방식을 지양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려 노력 -화내고 짜증내지 않으려 노력 -욕하지 않으려 노력 -잔소리 하지 않으려 노력 -핀잔주지 않으려 노력
	새로운 대화방식 습득으로 자녀와의 소통이 가능해짐	-대화법의 변화로 아이를 이해하게 됨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 -노력을 통해 소통의 문을 열
훈육방식의 변화	너그러워짐	-아이의 속도보다 앞서가지 않으려 노력 -규제에 융통성이 생김
	자율권을 줌	-자녀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줌 -체벌 시 자녀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욕이나 감정적 대응 지양	-욕부터 하거나 욕하는 성질을 변화시키려 노력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녀를 대하려 노력
자녀와의 친밀감 증진	대화를 통해 가까워지는 관계	-대화를 통해 자녀와 더 가까워짐 -함께 서로가 보낸 일상에 관해 이야기 나눔 -불편한 관계에서 친밀히 소통하는 관계로
	서로 이해하는 편안한 관계	-서로에게 더 다가감 -친구 같이 서로 이해하는 관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짐 -함께 TV를 봄
	사랑을 표현함	-문자 메시지로 애정 표현 -스킨십으로 애정 표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함
자녀의 비전에 대한 소통과 지지	정보수집과 소통	-자녀의 관심분야에 관해 알아봄 -자녀가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제안
	비난이나 판단 대신 지지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판단하지 않게 됨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 -잘 안될 때 비난 대신 지지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지지	-자녀의 선호와 재능을 고려한 진로 찾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
	구체적 지원 제공	-자녀의 진로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 -꿈에 대한 지원을 약속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일상 속에서 가르쳐줌

범주	하위범주	개념
긍정적 정서 증진	행복감 증진	-이전 보다 행복해짐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아짐 -웃는 얼굴로 표정이 변함
	자존감 증진	-나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를 해줌
	정서적 안정감 증진	-마음이 편안해짐 -얼굴로 나타나는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	-함께 대화함으로 스트레스 받은 마음이 풀림 -짜증나는 얼굴이 웃는 얼굴로 -서로의 힘듦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힐링 경험
	은둔형 삶에서 벗어남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삶에서 세상 속으로 -은둔형 삶에 대한 변화 의지
나의 변화는 자녀의 변화로	자녀의 자신감 증진	-칭찬과 인정의 효과로 자녀가 자신감 가짐 -지지와 격려로 자녀가 도전의식이 생김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	-자녀가 차분해짐 -자녀가 편안해짐 -자녀가 집에 있을 때 기분이 좋음
	자녀에게 목표가 생김	-자녀가 공부 포기에서 목표를 지니고 공부하기 시작 -자녀 스스로 대학진학 목표설정 -자녀의 성적이 향상됨 -자녀가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자녀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자녀가 엄마와 동생을 위하는 행동을 함 -자녀가 엄마의 말을 잘 들음 -엄마 퇴근 시 자녀가 반갑게 맞이함 -자녀가 나쁜 행동에 연루되지 않음 -자녀가 욕하지 않음
이어지는 가족전체의 변화	나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나의 변화는 자녀와 집안의 변화로 -서로를 생각하고 도와줌
	서로를 대하는 얼굴표정이 밝아짐	-짜증스러운 얼굴에서 밝은 얼굴로 -자녀들이 밝아짐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 & 활동 생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게임하는 즐거운 시간 가짐 -서로 안아줌

(2)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도움

프로그램 참여가 어떤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첫째, 아이와의 대화법, 공감과 격려기술, 칭찬기술 등과 같은 부모역할 수행에 유용한 기술들을

배운 것, 둘째, 아이의 강점을 보는 쪽으로 자신의 관점이 전환된 것, 셋째, 자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 넷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참여자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또는 다른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다섯째,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삶의 힘든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집단 안에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표 9〉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도움의 하위범주와 개념들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장 도움이 된 것	유용한 parenting 기술을 배움	-칭찬법, 대화법 등을 배움 -공감기술, 격려기술 등을 배움
	관점이 전환됨	-자녀의 강점을 보게 됨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앎
	공감과 이해에 기반 한 자녀와의 관계 변화	-자녀를 더 알게 됨 -자녀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변화 -자녀에게 공감하게 됨
	참여자들 서로를 통해서 배움	-서로에게 주는 피드백이 도움이 됨 -다른 엄마들을 통해서 배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음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힐링을 경험	-함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함 -삶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힐링을 경험함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및 자녀와의 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전국 10개소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유사실험설계와 포커스집단인터뷰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에서는 통제집단과 달리 집단 내 프로그램 사전-사후점수 변화 비교 시 연구에 사용된 전

영역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즉, 부모역할 자긍심과 그 하위 영역인 부모역할 만족도, 자신감, 자녀지도 통제감, 부모자녀관계 만족,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며,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시 수업과 학력, 그리고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 자긍심과 그 하위영역인 부모역할 만족도와 자신감, 그리고 부모자녀의사소통에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사후점수에 대해 갖는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산출되어 본 프로그램이 부모역할과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여러 영역들 가운데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역할 만족감,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공분산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가 갖는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두 영역에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실험집단에 나타난 점수의 변화가 통제집단과 비교 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될 만큼 충분히 크기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본 프로그램의 보완과정에서 이 두 영역에 대한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국을 단위로 다수의 기관에서 123명의 프로그램 참여자와 92명의 통제집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것이어서 본 프로그램 개발 당시 제기된 연구의 제한점인 1개 지역, 1개 기관에서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수업과 학력,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전 측정된 부모역할 관련 척도의 사전점수에서 차이가 발견되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유사실험설계가 갖는 한계로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실험집단으로 모집하고, 동일기관 이용자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머니로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 모집이 진행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직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역할 수행에서 스스로가 인지하는 어려움이 더 큰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일차적 의지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전보다 자녀의 강점을 더 보게 되고,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며, 프로

그램을 통해 알게 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소통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나아가서는 힐링을 경험하는 등 어머니들 자신의 긍정적 정서가 증진된 점,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들의 변화가 자녀의 행동과 태도 및 가족전체에 까지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 점 등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개발 당시 실시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에서 부모로서의 인식변화, 자녀와의 관계변화, 의사소통의 변화, 그리고 자녀의 태도와 행동 및 가족전체의 분위기 변화 등이 내용분석의 주요 결과로 도출된 것과도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김연수, 2015), 본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실제로 부모 자신과 자녀, 그리고 가족 전체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을 증진시켰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Clarke & Churchill, 2012), 자녀의 문제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습기술 등과 같은 자녀의 변화에도 유의미한 효과성이 있음이 보고된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이재림 외, 2013).

포커스집단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경험한 이와 같은 변화내용들은 통계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이들 가족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내용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집단의 분위기와 응집력,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 동기와 노력 등에 따른 개별적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 시 무작위 배정의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유사실험설계 방식으로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둘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후조사를 프로그램 종료 직후 시점에 1회 실시하여,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 점, 셋째, 포커스집단 인터뷰 참여자 선정 시 인터뷰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높은 자들로 집단이 구성되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험한 변화가 크고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자들의 경험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들은 첫째, 프로그램이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 희망, 비전 등을 중시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강점관점에 기반하고 있으며, 둘째, 진행방식이 일방적 강의나 주입식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모역할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매 회기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 하고, 힘든 일을 상의하며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단이 진행된 것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실시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는 것 못지않게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머니들이 직면한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점관점에 기반 한 집단 실천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향후 부모역할 프로그램 실시에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해주는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방식의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해본다.

2. 지역사회 활용 방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본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근의 가족관련 및 복지기관들을 통해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및 여성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증진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년기 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발달과정 상의 스트레스 외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가족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지원책으로도 이와 같은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적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변화가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 및 행동 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변화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일차적 양육책임자인 어머니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족 내 환경적 스트레스가 큰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가족환경이 보다 지지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고민과 의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집단실천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는 기존의 부모교육이 강의나 강연 위주의 형태로 이론중심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지적(박수선·강기정, 2008)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소희·서우경, 2008; 김사라형선, 2011)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지지와 토론에 기반 한 '집단실천'의 방식이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유용성이 있음을 제시해준다. 또한 이러한 상호지지와 공유에 근거한 집단형식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의 어려움 외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에 관해 집단 내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 기대되므로 집단실천 방식의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를 제언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과 같은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사회 내의 가족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실무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실무자 가운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들이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담당자로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들 실무자들이 집단실천의 지식과 기술, 강점관점 및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이를 부모교육 등과 같은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실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활성화가 요청된다.

다섯째,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실시 방식에 있어 보다 많은 저소득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부모역할 프로그램은 6회기로 구성되어 주 1회씩, 6주간 동안 진행되었고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중년기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수행기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6주간 동안 연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어머니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서구의 ‘1일 집단 부모역할 프로그램(All-day Group Parenting Program)’(Tellegen & Johnston, 2017)과 같이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유지하되 전달방식에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하여 종일과정으로 전달방식의 변화를 시도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향후 부모역할 프로그램에서 접목해볼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대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연구결과 자녀의 연령대가 초, 중, 고인 모든 경우에 프로그램 사후 긍정적 점수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자녀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초, 중, 고 자녀를 둔 부모들 모두에게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초, 중, 고 자녀를 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확대적용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도 경험할 수 있으며, 자녀가 특수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또는 아버지가 일차적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더 큰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접목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제 5호. 141-150.
- 김길숙(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제 9권 제 4호. 273-292.
- 김사라형선(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공감증진 및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녀양육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9권 제 5호. 141-152.
- 김연수(2015). “청소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9권. 7-37.
- 김현철·김은정·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Ⅱ :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희진(2002). “저소득층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과정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22권 제 3호. 43-66.
- 박수선·강기정(2008). “부모교육 실천을 위한 부모코칭 모형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지. 제 5권 제 2호. 27-55.
- 박현숙·구현영(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 19권 제 4호. 411-419.
- 박현진·송미경·김은영(2011).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가출경험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배주미·조은숙·조영미·김경은·최요한·오은주(2013).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및 상담·치료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소수연·김경만·양대화·안지영·김승윤·유준호·지수연·이현숙(2013).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양미진·남은영·이수림·이자영·허자영(2010). “저소득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청소년상담연구. 제 18권 제 1호. 113-141.
- 양옥경·김연수(2004).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4권. 225-261.
- 양옥경·김연수(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2권 제 2호. 103-129.
- 월드비전(2014). 청소년기 자녀양육 가족지원을 위한 월드비전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보고서. 월드비전.

- 월드비전(2016). 맘이 든든 부모역할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보고서. 월드비전.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9권 제 2호. 119-151.
- 이명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한국가족복지학*. 제 16권 제 3호. 209-224.
- 이소희·서우경(2008). “부모교육에서의 코칭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부모교육학회*. 제 5권 제 1호. 5-21.
- 이은주·이은숙(2002). “고등학생의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비행과의 관계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 9권 제 1호. 56-65.
- 이재림·김지애·차동혁·이향희(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1권 제 3호. 27-47.
- 이재현(2008). *빈곤부모를 위한 강점관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류희균(2006). “부모역할 자긍심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동기 자녀의 어머니용”. *상담학연구*. 제 7권 제 4호. 1239-1254.
- 임은미·김종은(2014).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북아문화연구*. 제 39권. 61-82.
- 페인스테인(2008).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뇌 이야기*. 황매향(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Feinstein, S., Parenting the teenage brain: Understanding a work in progres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7).
- 한경남(2014).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역할만족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89권. 287-315.
- ATA, M., Castro, B. O., & Matthys, W.(2013). Effectiveness of the Incredible Years parent training to modify disruptive and prosocial child behavior: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 901-913.
- Barlow, J. & Coren, E.(2018).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programs :A review of Campbell review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8(1), 99-102.

- Burns, J. & Hickie, I. (2002). Depression in young people : A national school-based initiative for prevention early intervention and pathways for care. *Australian Psychiatry*, 10(2), 134-138.
- Chu, J. T. W., Bullen P., Farruggia, S. P., Dittman, C. K., & Sanders, M. R.(2015). Parent and adolescent effects of a universal group program for the parenting of adolescents. *Prevention Science*, 16, 609-620.
- Clarke, K., & Churchill, H.(2012). A chance to stand back : parenting programmes for parents of adolescents. *Children & Society*, 26, 316-327.
- Cm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Doherty, F. M., Calam, R., & Sanders, M. R.(2013). Positive parenting program(Triple P) for families of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self-directed teen triple P.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8(8), 846-858.
- Flouri, E., Mavroveli, S., & Tzavidis, N.(2012). Cognitive ability, area deprivation,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 985-992.
- Furlong, M., McGilloway, S., Bywater, T., Hutchings, J., Smith, S. M., & Donnelly, M.(2012). Behavioral and cognitive behavioral parenting programmes for early onset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ged 3 to 12 years. *A Systematic Review*, 12, doi : 10.04073/ csr.2012.12.
- Gardener, F., & Leijten, P.(2017). Incredible years parenting interventions : current effectiveness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5, 99-104.

- Glicken, M. D.(2004). *Using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A positive approach for the helping professions*. Pearson Education, Inc.
- Leijten, P., Raaijmakers, M. A. J., & Castro, B. O.(2017). Effectiveness of the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 for families with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ethnic minority background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6(1), 59-73.
- Saleebey, D.(2009).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Fif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 Sanders, M. R.(2012). Development, evaluation, and multinational dissemination of the Triple-P positive parenting program.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8(11), 11.1-11.35.
- Sanders, M. R., Kirby, J. N., Tellegen, C. L., & Day, J. J.(2014).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 multi-level system of parenting suppor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 337-357.
- Tellegen, C. L., & Johnston, E.(2017). A service-base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n all-day group parenting progra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664-673.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The Guilford Press.
- Walsh, F.(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 130-137.

Abstract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program for mothers of low-income families with adolescents and community-based application plan

Kim, Yoen So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program, specifically designed for low-income parents of adolescents by use of the quasi-experiment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research method. Ten social service agencies throughout the n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123 mother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92 mothers for the control group. As the results of the effectiveness tes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arents who received the parenting program repor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arent satisfaction, parent confid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family relation with significant decrease of parenting stress at post-interven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contents analysis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19 program participants showed increases of self-insight as a parent, positive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improvemen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increases in positive emotions, and positive changes in their adolescent children and family atmospheres as main change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arenting program. These findings indicates that this parenting program for low-income mothers of adolescents may be a useful tool for improving parent's positive functioning in the basis of community-based approach.

Keywords : parenting program, effectiveness of parenting program, mothers of low-income families with adolescents, strength perspective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